

께서

주격 조사 — 높임

이/가의 높임말입니다. 께서를 쓰면 문장의 나머지도 이에 맞춰야 하며, 서술어도 높임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 결합 방법

상황	형태	예
높임 주어	께서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주제로	께서는	부모님께서서는 부산에 계세요
~도	께서도	사장님께서도 아세요
서술어 일치 필수	-(으)시-	가시다, 오시다, 하시다
특수 동사	계시다, 드시다, 주무시다	할아버지께서 주무세요
자신에게는 쓰지 않음	제가를 씀	제가 하겠습니다 — 저께서 (×)

■ 언제 쓰나요

께서는 주어가 높여야 할 대상일 때 씁니다. 선생님, 부모님, 조부모님, 상사, 손님 등이 그렇습니다. 이/가를 대신하며, 함께 쓰이는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께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높임법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주어를 께서로 높이면 서술어에 -(으)시-가 필요하고, 일부 동사는 특수한 형태로 바뀝니다. 있다는 계시다, 먹다는 드시다, 자다는 주무시다가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주무세요.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높임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므로 저께서나 제가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 사람에게 자기 가족을 말할 때는 높임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에 께서를 붙이면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 예문

- 1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2 할머니께서 편찮으세요.
- 3 부모님께서 오셨어요.
- 4 사장님께서서는 지금 안 계세요.
- 5 아버지께서도 같이 가세요.
- 6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 비교

이/가
문법적 기능은 같고 높임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가에 높임 서술어를 쓰는 것도 가능하며 일상 대화에서 흔합니다. 께서를 쓰면 문장 전체의 격식이 높아집니다.
선생님이 오셨어요. (일상) /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격식)

께
께서는 높이는 대상이 행위를 하는사람임을 나타내고, 께는 받는사람임을 나타냅니다. 한 글자 차이로 역할이 정반대가 됩니다.
선생님께서 주셨어요. (선생님이 주었다) / 선생님께 드렸어요. (내가 선생님에게 주었다)

은/는
높이는 주어를 주제로 만들 때는 께서를 바꾸지 말고 뒤에 는을 붙입니다. 그 결과가 께서는입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서울에 계세요. / 부모님은께서 (×)

■ 주의

- ✗ 선생님께서 왔어요.
-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높임법은 세트로 움직입니다. 께서로 주어를 높였다면 서술어에 -(으)시-가 필요합니다. 어긋나게 쓰면 높임말을 전혀 쓰지 않은 것보다 더 어색하게 들립니다.
- ✗ 저께서 하겠습니다.
- 제가 하겠습니다.
높임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인지 말하는 사람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제가를 쓰고, 공손함은 서술어 어미로 나타냅니다.
- ✗ 선생님께서 책을 드렸어요.
- 선생님께 책을 드렸어요.
드리다는 말하는 사람이 위사람에게 준다는 뜻이므로, 선생님은 받는 사람이 되어 께를 씁니다. 께서를 쓰면 선생님이 주는 사람이 됩니다.